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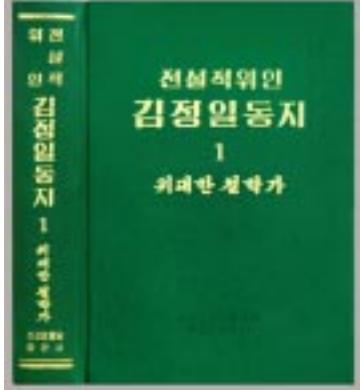
튼튼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5호 [루계 제23402호] 주제100 (2011)년 3월 26일 (토요일)

《전설적 위인 김정일동지》 제1권 《위대한 철학가》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제 100 (2012)년 탄생일에 출판하여 도서 「전설적 위인 김정일동지」 전 5권이 발행된다.

조선로동당 출판사에서 제 1권 「위대한 철학가」를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이어나가는 김정일동지는 사상과 령도에서 제일이고 풍모와 인력에서 으뜸이며 만민의 칭송을 받고있는 걸출한 지도자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과 전보적인 령도를 위하여 일하고 풍물과 함께 경애하시는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천혜의 안의 예지, 폭넓은 탐구력과 깊은 분석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집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였고 그를 실현할 전시기 신진은 시대의 지도사상을 완성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시와 탁월한 령도력, 숭고한 풍모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 시대와 인민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철학가,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세계 반미 대결에서 백승을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기 위한 투쟁을 현명

하게 이끄는 창조와 전설의 영재,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해주시는 철세의 애국자이시다.

전설적 위인 이신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활동력을 사후에

길이 전하려는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훨씬 발행되는 도서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평도력, 업적과 풍모의 위대성이 전면적으로 절대 성취되었다.

도서의 제 1권 「위대한 철학가」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시대 사상을 빛내인 영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주사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이 서술되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천혜의 안의 예지, 폭넓은 탐구력

과 깊은 분석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집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였고 그

를 실현할 전시기 신진은 시대의

지도사상을 완성하신 불멸의 업적

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과학

적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완

벽하게 체현하였으며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장군님

CNC (20)

《기계는 구면인데 사람은 초면이요》

드디어 상봉의 시각이 왔다.

CNC회의 길에서 말없이 뜻을 나누어온 정다운 일군이 장군님 앞에 서 있었다.

장군님 앞에 나선 일군이 정중히 인사를 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5년 4월 29일 우리에 만든 첫 CNC설비를 보아 주시고 걸음걸음을 잡아가면서 오늘은 이렇게 나라의 CNC기계공업을 앞장에서 떠나고나가는 시대의 선구자로 키워 주시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현하기계판리국안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전체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깊이 머리 속에 인사를 드리는 1번수준 바라보시면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아, 현하기계! 기계는 구면인데 사람은 초면이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되뇌이시였다.

《기계는 구면인데 사람은 초면이야...》

그이께서는 몇번이고 이렇게 되뇌이시였다.

갈라진 그 음성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구면친구》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는 CNC기계들을 개발해내는 길에 모든것을 꽁그리 박차온 전사에게 안겨주신 고귀한 사랑의 말씀이었다.

무수한 현지지도의 길마다에서 우리 장군님을 반겨았던 그 수많은 《구면친구》들뒤에 이처럼 훌륭한 인간들이 서있었다는 것을 그이께서는 이 한마디 말씀에 담아주신것이었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냥심의 인간들, 자기의 실력으로 세계적인 창조물을 만들어 조국이 빛나게 하는 인재형의 일군들이 최첨단돌파전의 선두에 서있기에 우리 조국에는 부강번영의 대통로가 들판히 닦아지고 있는것을 확증해주신 드리를 말씀이였다.

그것은 지식경제시대에 살아갈 강성 대국건설자들의 인생판에 새로운 출발의 신호성을 울려주는 고귀한 명언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설명들이 모두다 마음에 드리었다.

설명하는 도중에 질문도 제기하시고 보충도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나누시는 대화는 그 어떤 위인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높고도 눈부신 지성의 세계를 펼쳐놓았다.

장군님께서는 평범한 그 대화들은 지식경제시대 인간의 사고에 대한 생동한 표상이기도 하였다.

장군님과 1번수준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장군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였다.

《대형, 중형설비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공작기계부분의 국산화문제와 어미기계개발문제가 대단히 흥미있습니다. 원가를 줄이자면 국산화를 해야 합니다.

어미기계를 만들면 거기서도 원가를 줄일수 있지 않소?》

《예. 생산성이 높기때문에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미기계가 대단히 흥미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어미기계를 만들대

대하여 수차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들이 어미기계를 만들겠다고 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기계부분들은 둘째들이 개발하고 전기, 전자부분들은 다른 공장들에서 개발하도록 조직하여야 합니다.》

CNC회의 길에서 남모르게 겪으신 곡절들에 대한 추억과 혁명의 시련속에선 점증된 인간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한꺼번에 물결쳐오는 감회깊은 시작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말씀을 시작하였다.

《〈현하기계〉는 이제부터 무인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무인화에 대한 목표는 이미전에 세워 주신것이었다.

마누막두라》로부터 무인화에로, 평범한 과학자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이 위대한 운명전환을 마련해주신 자애로운 승승이시며 어버이 이신 경에 있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토의 정이 CNC바다우에 출렁이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데 또 한데 늘 어나는 무수한 CNC기계들과 《구면친구》로 되신것처럼 그 기계의 개발자들과도 염마구연이었다.

하지만 《현하기계》개발집단에 주신 무인화에 대한 목표는 그 폭과 깊이가 다른것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데 또 한데 늘 어나는 무수한 CNC기계들과 《구면친구》로 되신것처럼 그 기계의 개발자들과도 염마구연이었다.

우리 조국에 CNC폭포가 쏟아지게 하는 것이 최첨단돌파전에 나선 《현하기계》개발자들의 최고의 혁신적 사명이라고

높이 들어 주신 상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득 이렇게 물어보시였다.

《〈현하기계〉에 류학생이 몇 명이오?》

뜻밖의 물음이었다.

《현하기계관리국에 CNC쎈터를 뜯었지. 남들이 부리워하도록 멋쟁이쎈터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동부들이 기제하는 모든것을 쌍수를 들어 한성합니다. 나는 둘째들의 요구대로 모든것을 다 해주겠소!》

참으로 가슴드거운 사랑과 격려의 말씀이었다.

장군님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었다.

최첨단의 위대한 개척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다함없는 흠토의 정이 넘치는 시각이었다.

《다재으로 변이 일어나는 해의 마지막날 텐트를 아주 멋있게 끊었습니!》

그이께서는 확고한 신심에 넘쳐있는 일군들에게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2 ~ 3년 안으로 세계를 디디고 끌어온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투쟁하여야 합니다.》

희망에 넘친 당부였다.

뜨거운 당부를 가슴에 새길수록 신심과 용기가 배배해졌다.

그 신심과 용기가 일군들의 가슴속에 또 하나의 지혜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다.

장군님의 구면친구로 된 현하기계관리국의 일군이 정연한 자세로 장군님께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의하여 최근에 현하기계관리국이 크게 확장되고 온 나라에 CNC바탕이 불어 그 어제서나 우리한테 달라붙습니다.》

《현하기계》개발집단에서 펴용하는 사

무실이 사업의 폭에 비하여 이제는 비좁아졌다는 것을 해아리신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심증한 어조로 이동부들은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는데서 큰일을 향해 대단히 노력이라고, 어제서나 《현하기계》의 끝을 다 보았다고 드롭게 말씀하시

생각하였던 일군들은 일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최첨단돌파전에서 중핵적역할을 하고 있는 《현하기계》개발자들에게 세워주신 이 목표는 조선이 도달할 최첨단의 새로운 높이를 그어주는 위대한 혁명의 선언이었던 것이다.

장군님과 1번수준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부인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오?》

《될수록 한 기대에서 여러 가공공정을 수행하게 하고 공정간 험계는 로보트에 의해 진행하게 하려고 합니!》

《내가 얼마전에도 말하였지만 부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말씀을 시작하였다.

《〈현하기계〉는 이제부터 무인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무인화에 대한 목표는 이미전에 세워 주신것이었다.

마누막두라》로부터 무인화에로, 평범한 과학자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이 위대한 운명전환을 마련해주신 자애로운 승승이시며 어버이 이신 경에 있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토의 정이 출렁이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데 또 한데 늘 어나는 무수한 CNC기계들과 《구면친구》로 되신것처럼 그 기계의 개발자들과도 염마구연이었다.

하지만 《현하기계》개발집단에 주신 무인화에 대한 목표는 그 폭과 깊이가 다른것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데 또 한데 늘 어나는 무수한 CNC기계들과 《구면친구》로 되신것처럼 그 기계의 개발자들과도 염마구연이었다.

우리 조국에 CNC폭포가 쏟아지게 하는 것이 최첨단돌파전에 나선 《현하기계》개발자들의 최고의 혁신적 사명이라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희한한 CNC공장의 풍경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것이 파연 우리 나라의 공장이 맞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모든 것이 새로왔다. 《희천현하기계종합공장》은 이름자체가 나라의 새로운 전도를 말해주고있었던 것이다.

이라는 이름도 새로운것이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현하기계》라는 이름이 그대로 명칭으로 된 희천현하기계종합공장은 이름자체가 나라의 새로운 전도를 말해주고있었던 것이다.

들을 계몽시키신 과정, 단계를 정하시고 자금을 효과적으로 쓰신 과정, 시범을 창조하시고 표본을 만들어놓으신것, 경쟁을 통한 정신력발동과정 등 모든것이 그려졌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이의 머리속에서 설계되고 그이의 강행군길을 통하여 실천된것이었다.

보통 정치가들이 감히 결심할수도 없고 해낼수도 없는 거대한 일들을 비슷한 속도로 수행해내시였다.

개별적인 CNC를 들여놓는 첫단계와 한개 구역을 CNC화하는 둘째 단계, 한개 공장을 통합생산체계로 형성하는 세번째 단계와 무인화에 이르는 현대화의 4개 단계를 불과 15년기간에 내실내실화시켰다.

그야말로 최고속이었다. CNC화에 대한 예술영화창작에 달라붙 수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천연암에 고이 새겨 대를 이어 걸이길이 전하시려는 일념이 주체의 최고성지의 물울타리를 CNC기계로 만들어내는 솔직한 혁신이다.

1000개의 힘으로 만들어낸 첫 수작식 공작기계의 동작과정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계가 나왔다고 그리고 기뻐하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장군님의 마음 속에 깊이 간직되어있었다.

절세의 애국자라는 말로써도 다 칭송할 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천연암에 고이 새겨 대를 이어 걸이길이 전하시려는 일념이 주체의 최고성지의 물울타리를 CNC기계로 만들어내는 솔직한 혁신이다.

100개의 물울타리를 CNC기계로 가공해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의 CNC기계를 처음으로 보아주신 1995년 4월로부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1996년 봄이였다.

금수산기념궁전의 물울타리를 100개를 가공한 CNC기계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람에 영화를 통해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하나님의 사실을 놓고도 CNC화의 속도를 충분히 가능할수 있는것이다.

온 나라의 CNC화를 위한 그이의 투쟁은 평도파장이자 사회적교육과정이었고 그 자체로 만들어낸 CNC공작기계였다.

이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혁신력을 사랑하는 선조의 크나큰 궁지이며 자랑이다.

CNC화로 우리 조국의 새로운 전도를 열어놓으신 원정일동지!

그이는 정치가로서 갖출수 있는 모든 능력을 최상의 높이에서 겸비한 멍청의 정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의 CNC화를 위한 대량의 명도방식을 창조하신 그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면서도 가장 끝에 있었던 것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며 강행군의 인생에 사시는 위대한 인간의 눈물은 뜨겁다.

그렇다. 그이는 위대한 인간이시다.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의 CNC화를 위한 대량의 명도방식을 창조하신 그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면서도 가장 끝에 있었던 것이다.

모든것의 출발점에 언제나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있었던 것이다.

그이는 정치가로서 갖출수 있는 모든 능력을 최상의 높이에서 겸비한 멍청의 정이었다.

바로 그렇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도를 받는 우리 조국은 인공지구위성발사국, 우주유류국으로, CNC강국으로 찬연히 두번으로 만들어낸 그이의 헌신이다.

이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혁신력을 사랑하는 선조의 크나큰 궁지이며 자랑이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 조국을 위한 원정일동지!

장군님을 위해 하늘이라고 하는지, 그이의 눈물겨운 혁신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속에서 철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장군님은 우리 운명의 하늘이십니다.

장군님은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신이십니다.»

심장의 울림에서 나온 뜨거운 고백이었다.

누구나 생각하고있던 너도도 자연스러운 고백이었다.

나는 나에 대하여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깊이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사이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아들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매일 매일 역시 갈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너무도 겸허한 말씀이었다.

조국과 민족앞에, 우리의 투쟁에 있어서는 너도도 큰 업적을 쌓아올리시면서 단체로 확대되는 혁명의 기초이자 단체로 확대되는 혁명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해 한 눈물겨운 혁신이다.

지금 세계의 모든 정치가들이 자기의 독특한 정치무기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CNC와 더불어 빛나는 혁명의 정신이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이 위대한 진리를 실천으로 확증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공정 건설장에서 견결한 투사, 열렬한 애국자들의 대격전장

조선의 속도

온 홍남땅이 크나큰 격정파 드높은 보답의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또다시 가스화공정 건설장에 모신 홍남비료련합기업소로 동계급을 비롯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자력갱생의 정신력이 최대로 불출되고 건설장 그 어디에서나 편일 눈부신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야 합니다.』

얼마전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찾았던 우리는 들끓는 건설장의 여울곳을 돌아보고 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주체적인 비료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가스화공정 건설의 전도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 3 9일만에 또다시 가스화공정 건설장을 찾으셨는데 얼마나 격정이 크겠는가?

건설건재 공업성 부상리순찰 : 그렇다. 정말이지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파한 달 낮짓하여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셨을 때에도 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건설장에 모신 그날 우리 일군들과 건설자, 지원자들은 솟구치는 눈물을 풀할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고조의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진두지휘하시며 구상하고 작전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고 또 찾으셔서 할 만위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도 3 9일만에 건설장을 찾으셨으 있으시는 일은 장군님께서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 가스화공정 건설의 원공을 위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을 위하여 열마나 마음쓰는가를 폐부로 느끼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는 오직 우리 민족밖에 없다. 하루빨리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순간의 험식도 없이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걸으시는 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번 협진지도는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혜민의 서사시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

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 준 고무적기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진지도에 참으로 높은 평가주시며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시책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하자

정성과 첨단의 학을 다같이 틀어주고

평안북도 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은 환자들에 대한 정성이 매우 지극하고 의술도 높아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최근 시기에도 병원의 의료일군들 속에서는 선군시대 보건일군의 고상한 정신도덕풍모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발휘됨으로써 온 나라에 크게 소문을 내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증진 시킬대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정성의 참의미를

《환자의 소생을 위해서라면 피와 살은 물론 자기들의 귀중한 눈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것이 우리 병원종업원들의 자극한 정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 있습니다.》

《병원일군이 우리에게 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안파파장 김정근

동무가 전국보건일군정성경험회

로 토론회에 참가하여 토론했던 내용부터 말해 주었다.

어느 한 단위의 직장장이 뜻밖의 일로 두눈을 심하게 상하고 병원에 실려 왔을 때였다.

병원종업원들은 실망당한 그에게 광명을 다시 찾았기 위

해 보지 못한 미세조작수술을 성과적으로 헤낼 의사가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들의 지극한 정성과에 마련된 토끼풀과 잉어탕이 매일 환자의 식탁에 올랐다.

그러던 모습을 보는 일군들의 마음은 안타깝고 아프기만 하였다.

《그때 병원종업원들의 진정이 뜨거울수록 우리에게 환자

의 눈을 고치기 위한 과학적인 치료대책이 더 절실히 요구되

었습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환

자는 최대의 정성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높은 의술에 있다

는 것을 그때처럼 절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하는 일군

의 말은 우리의 심장을 세차

게 울려 퍼졌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최대의 정성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높은 의술에 있

다는 주장에 공감되었기 때문

이다.

며칠 밤을 피타는 고심 속에 밝힌 안파파장은 드디어 동종구결막이식수술이라는 중대수술에 와내렸다. 자기의 눈을 바꿔 환자의 눈을 살려내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병원에서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미세조작수술을 성과적으로 헤낼 의사가 요구되는 것이었다.

파장의 의사들이 미세조

작수술인 동종구결막이식수술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의술을 렘바

쳤던 것이다.

그는 먼저 안파파장 김정근

동무가 전국보건일군정성경험회

로 토론회에 참가하여 토론했던 내용부터 말해 주었다.

어느 한 단위의 직장장이 뜻밖의 일로 두눈을 심하게 상하고 병원에 실려 왔을 때였다.

병원종업원들은 실망당한 그에게 광명을 다시 찾았기 위

해 보지 못한 미세조작수술을

성과적으로 헤낼 의사가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들의 지극한 정성과에 마련된 토끼풀과 잉어탕이 매일 환자의 식탁에 올랐다.

그러던 모습을 보는 일군들의 마음은 안타깝고 아프기만 하였다.

《그때 병원종업원들의 진정이 뜨거울수록 우리에게 환자

의 눈을 고치기 위한 과학적인 치료대책이 더 절실히 요구되

었습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환

자는 최대의 정성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높은 의술에 있다

는 것을 그때처럼 절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하는 일군

의 말은 우리의 심장을 세차

게 울려 퍼졌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최대의 정성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높은 의술에 있

다는 주장에 공감되었기 때문

이다.

며칠 밤을 피타는 고심 속에 밝힌 안파파장은 드디어 동종구결막이식수술이라는 중대수술에 와내렸다. 자기의 눈을 바꿔 환자의 눈을 살려내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병원에서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미세조작수술을

성과적으로 헤낼 의사가 요구

되는 것이었다.

파장의 의사들이 미세조

작수술인 동종구결막이식수술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의술을 렘바

쳤던 것이다.

그는 먼저 안파파장 김정근

동무가 전국보건일군정성경험회

로 토론회에 참가하여 토론했던 내용부터 말해 주었다.

어느 한 단위의 직장장이 뜻밖의 일로 두눈을 심하게 상하고 병원에 실려 왔을 때였다.

병원종업원들은 실망당한 그에게 광명을 다시 찾았기 위

해 보지 못한 미세조작수술을

성과적으로 헤낼 의사가 요구

되는 것이었다.

파장의 의사들이 미세조

작수술인 동종구결막이식수술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의술을 렘바

쳤던 것이다.

그는 먼저 안파파장 김정근

동무가 전국보건일군정성경험회

로 토론회에 참가하여 토론했던 내용부터 말해 주었다.

어느 한 단위의 직장장이 뜻밖의 일로 두눈을 심하게 상하고 병원에 실려 왔을 때였다.

병원종업원들은 실망당한 그에게 광명을 다시 찾았기 위

해 보지 못한 미세조작수술을

성과적으로 헤낼 의사가 요구

되는 것이었다.

파장의 의사들이 미세조

작수술인 동종구결막이식수술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의술을 렘바

쳤던 것이다.

그는 먼저 안파파장 김정근

동무가 전국보건일군정성경험회

로 토론회에 참가하여 토론했던 내용부터 말해 주었다.

어느 한 단위의 직장장이 뜻밖의 일로 두눈을 심하게 상하고 병원에 실려 왔을 때였다.

병원종업원들은 실망당한 그에게 광명을 다시 찾았기 위

해 보지 못한 미세조작수술을

성과적으로 헤낼 의사가 요구

되는 것이었다.

파장의 의사들이 미세조

작수술인 동종구결막이식수술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의술을 렘바

쳤던 것이다.

그는 먼저 안파파장 김정근

동무가 전국보건일군정성경험회

로 토론회에 참가하여 토론했던 내용부터 말해 주었다.

어느 한 단위의 직장장이 뜻밖의 일로 두눈을 심하게 상하고 병원에 실려 왔을 때였다.

병원종업원들은 실망당한 그에게 광명을 다시 찾았기 위

해 보지 못한 미세조작수술을

성과적으로 헤낼 의사가 요구

되는 것이었다.

파장의 의사들이 미세조

작수술인 동종구결막이식수술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의술을 렘바

쳤던 것이다.

그는 먼저 안파파장 김정근

동무가 전국보건일군정성경험회

로 토론회에 참가하여 토론했던 내용부터 말해 주었다.

어느 한 단위의 직장장이 뜻밖의 일로 두눈을 심하게 상하고 병원에 실려 왔을 때였다.

병원종업원들은 실망당한 그에게 광명을 다시 찾았기 위

해 보지 못한 미세조작수술을

성과적으로 헤낼 의사가 요구

되는 것이었다.

파장의 의사들이 미세조

작수술인 동종구결막이식수술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의술을 렘바

쳤던 것이다.

그는 먼저 안파파장 김정근

동무가 전국보건일군정성경험회

로 토론회에 참가하여 토론했던 내용부터 말해 주었다.

어느 한 단위의 직장장이 뜻밖의 일로 두눈을 심하게 상하고 병원에 실려 왔을 때였다.

병원종업원들은 실망당한 그에게 광명을 다시 찾았기 위

해 보지 못한 미세조작수술을

성과적으로 헤낼 의사가 요구

되는 것이었다.

파장의 의사들이 미세조

작수술인 동종구결막이식수술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의술을 렘바

쳤던 것이다.

그는 먼저 안파파장 김정근

동무가 전국보건일군정성경험회

로 토론회에 참가하여 토론했던 내용부터 말해 주었다.

어느 한 단위의 직장장이 뜻밖의 일로 두눈을 심하게 상하고 병원에 실려 왔을 때였다.

병원종업원들은 실망당한 그에게 광명을 다시 찾았기 위

해 보지 못한 미세조작수술을

성과적으로 헤낼 의사가 요구

되는 것이었다.

파장의 의사들이 미세조

작수술인 동종구결막이식수술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의술을 렘바

쳤던 것이다.

그는 먼저 안파파장 김정근

북남대결상태의 해소는 시대와 민족의 요구

올해 공동사설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이하고 강조하였다. 공동사설은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 나갈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애국애족적인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북남관계는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배치되어 몇년째 파국 상태에 처해 있다. 북남관계의 개선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무엇보다도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대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물려줄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루려 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꿈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겨레의 높아가는 통일기운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파 남이 대화를 실현하고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북남대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기본방도이다.

통일문제의 당사자인 북파 남은 그 해결을 위해 응당 부단히 접촉하고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대화는 모든 문제 해결의 첫 공정이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이후 북파 남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왔다. 대화와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어 북남관계가 즐기

차게 발전하는 속에 6·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 선언이 체택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을 무한히 기쁘게 하였다.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리행되는 나날 북파 남은 반세기 이상 살았던 서로의 외교관과 불신을 가지고 이해와 신뢰를 두려워 하였으며 민족분별사에 일찌기 있으면 없는 사변적 성과들을 런이어 이를 통해. 북남대화의 활성화는 대화와 협상을 멀리 밀어냈으며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온 민족의 가슴속에 자주통일의 밝은 희망을 안겨 주었다. 북남대화는 대화와 협상 만이 북남관계 발전의 유일한 출로이며 평화와 통일의 기본방도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지난 세기 중엽에 시작된 우리 민족의 분열은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세기를 넘어 지속되는 민족분별사에 북파 남의 우리 민족에게 주는 불행과 고통은 너무도 크다.

외세의 분열책동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비록 북파 남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것은 반만년의 우유한 세월을 거쳐 형성된 민족성을 말살할 수 없다. 북파 남의 우리 민족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분열이 아니라 통일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인 통일은 오로지 대화의 방법으로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려와 현실을 통해 토후끼 체험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대결정책을 표방하면서 대화 그 자체를 한사군 거부하였다. 지난 3년간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성의와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몇차례 대화의 마당에 나왔다. 하지만 남측은 이미 대결을 예상하는 행위를 통해 대화를 차단하고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대화는 모든 문제 해결의 첫 공정이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이후 북파 남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왔다. 대화와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어 북남관계가 즐기

대화의 파탄이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에 미친 후과는 심각하다. 남조선당국의 대화파란책 등으로 북남관계는 파거의 대결시대로 뒤집어치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대화가 없는 것으로 하여 의견상이를 해소하고 충돌을

조진없이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얼마전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학술본부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오직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하면서 당국이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파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발표하여 지금 북남간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히 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평화통일과 화해협력을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화와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외동포들 속에서도 세차게 울려나오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해 나서는 것은 용납 못 할 민족적 죄악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열린 마음»이나, «대화할 준비»니 하고 떠들다가도 정작 대화 문제에 제기되면 그 누구의 «진정성»과 «태도변화»를 운운하며 대화의 재개를 집요하게 가로막고 있다. 한편으로는 친략적인 외세의 책임을 끌어안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대결정책을 통해 대화부정적자세와 립장이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본원인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시대의 흐름과 온 민족의 요구를 뚜바로 보고 대화에 대한 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한다.

북남대화는 결코 그 누구에 대한 선사품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운명, 북남관계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대화를 지향하는 것은 애국이고 통일이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매국이며 반통일이다.

온정철

남조선인민들

전심전력하고 있다고 썼다.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굽게 풍차 력사의 온갖 시련을 과감히 끊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공화국 북반부의 자랑찬 현실을 남조선인민들이 경탄하고 하였다.

사회주의 수호전을 통해 다져진 일심단결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풍속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단결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오늘날의 선군혁명 단결이라는 보다 높은 선군혁명 단결로 발전하고 있다. 선군혁명 단결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 복 투유의 이정치기 상은 바로 김정일령도자님의 정치지도력과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전민의 일심 단결에 의한 것이다.

평도자님의 두리에 뭉친 전민의 일심 단결, 이것은 가장 강고한 사상과 깨끗한 사랑과 의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무지의 힘을 낳는 위력한 원천이다.

자주연구학회 회원 조성일은 자기의 글에 복의 각계 각종은 령도자를 진심으로 받들어 사회주의의 제도를 고수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군민 일치의 노래 높이 당, 군, 민이 최고사령관의 명령 판찰에

같이 일어나 목숨바쳐 싸우는 일심일체된 무적의 정부부대», «이복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두리에 철통같이 몽친 필승의 강국»이라는 글들을 올렸다.

의류학회 리사 한철호는 이북민중은 명수의 사상으로 숨 쉬고 명수의 의지로 살고있다. 일심으로 겸고하고 단결로 위력한 이복의 무비의 힘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領導력에 있다고 말하였다.

«일심 단결과 정치지도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의 한 학생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에 기초하여 국민 북지시책을 펴며 이북민중 모두를 나라의 주민으로 내세워 주신다. 이북민족들이 장군님을 민족의 운명으로 추앙하며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노래를 자랑스럽게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펴하였다.

«전민이 일심 단결된 북녘의 하늘은 영원히 푸르고 높을 것이다», «김정일 장군님을 모신 이북의 일심 단결의 위력으로 나의 자주권과 존엄을 백방으로 수호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오는 이러한 신념의 목소리를 일심 단결의 위대한 화폭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흡모심의 분출이다.

【조선중앙통신】

자들의 합법적 권리마저 빼앗으 며 기업주들과 야합하여 파쑈족압에 광포하고 있다.

그러니 남조선로동자들이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8일 서울에서는 불경기사를 운운하며 부당한 «정리해고»를 벌여놓고는 하는 기업주들이 전민으로 나의 자주권과 존엄을 백방으로 수호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남조선의 진보운동단체들은 인터넷으로 전체 민중이 굳게 뭉친 일심 단결의 힘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하다.», «이북민은 김정일령수의 명령일하에 산악

를 경영 낸 빠지게 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하여 목돈을 벌었다. 결국 업주들은 로동자들을 희생시켜 제동주머니를 불균준이다.

대우자동차회사의 경우를 또 보자. 이 회사는 업무의 기본인 자동차판매가 아니라 전선업에 몰두하는 등 무책임한 경영을 해 왔다고 한다. 결국 회사의 경영은 파탄되었고 회사가 그 책임을 떠로동자들에게 들씌워 무리로 해고시켰다.

남조선의 대기업들이 로동자들에 대한 한 무더기 해고를 허용하고는 하는 기업주들이 그들을 희생시켜 제동주머니를 불균준이다.

대우자동차회사의 경우를 또 보자. 이 회사는 업무의 기본인 자동차판매가 아니라 전선업에 몰두하는 등 무책임한 경영을 해 왔다고 한다. 결국 회사의 경영은 파탄되었고 회사가 그 책임을 떠로동자들에게 들씌워 무리로 해고시켰다.

남조선의 대기업들이 로동자들에 대한 한 무더기 해고를 허용하고는 하는 기업주들이 그들을 희생시켜 제동주머니를 불균준이다.

남조선 1월 한전 중공업은 불경기를 기록으로 2900명의 로동자들을 대량 해고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당시의 일자리 문제로 대처한 한전은 당시까지도 로동자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남조선의 대기업들이 로동자들에 대한 한 무더기 해고를 허용하고는 하는 기업주들이 그들을 희생시켜 제동주머니를 불균준이다.

남조선 1월 한전 중공업은 불경기록으로 2900명의 로동자들을 대량 해고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당시의 일자리 문제로 대처한 한전은 당시까지도 로동자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남조선의 대기업들이 로동자들에 대한 한 무더기 해고를 허용하고는 하는 기업주들이 그들을 희생시켜 제동주머니를 불균준이다.

남조선 1월 한전 중공업은 불경기록으로 2900명의 로동자들을 대량 해고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당시의 일자리 문제로 대처한 한전은 당시까지도 로동자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남조선의 대기업들이 로동자들에 대한 한 무더기 해고를 허용하고는 하는 기업주들이 그들을 희생시켜 제동주머니를 불균준이다.

남조선 1월 한전 중공업은 불경기록으로 2900명의 로동자들을 대량 해고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당시의 일자리 문제로 대처한 한전은 당시까지도 로동자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남조선의 대기업들이 로동자들에 대한 한 무더기 해고를 허용하고는 하는 기업주들이 그들을 희생시켜 제동주머니를 불균준이다.

남조선 1월 한전 중공업은 불경기록으로 2900명의 로동자들을 대량 해고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당시의 일자리 문제로 대처한 한전은 당시까지도 로동자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남조선의 대기업들이 로동자들에 대한 한 무더기 해고를 허용하고는 하는 기업주들이 그들을 희생시켜 제동주머니를 불균준이다.

남조선 1월 한전 중공업은 불경기록으로 2900명의 로동자들을 대량 해고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당시의 일자리 문제로 대처한 한전은 당시까지도 로동자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남조선의 대기업들이 로동자들에 대한 한 무더기 해고를 허용하고는 하는 기업주들이 그들을 희생시켜 제동주머니를 불균준이다.

남조선 1월 한전 중공업은 불경기록으로 2900명의 로동자들을 대량 해고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당시의 일자리 문제로 대처한 한전은 당시까지도 로동자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 위원은 선군의 가치밀에 더욱 강화되는 우리 공화국의 단결된 위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사회주의 수호전을 통해 다져진 일심 단결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풍속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단결이라는 보다 높은 선군혁명 단결이라는 보다 높은 선군혁명 단결로 발전하고 있다. 선군혁명 단결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북은 위대한 철학자 김정일은 일심 단결과 정치지도력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단결이라는 보다 높은 선군혁명 단결로 발전하고 있다. 선군혁명 단결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북은 위대한 철학자 김정일은 일심 단결과 정치지도력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단결이라는 보다 높은 선군혁명 단결로 발전하고 있다. 선군혁명 단결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북은 위대한 철학자 김정일은 일심 단결과 정치지도력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단결이라는 보다 높은 선군혁명 단결로 발전하고 있다. 선군혁명 단결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북은 위대한 철학자 김정일은 일심 단결과 정치지도력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단결이라는 보다 높은 선군혁명 단결로 발전하고 있다. 선군혁명 단결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북은 위대한 철학자 김정일은 일심 단결과 정치지도력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단결이라는 보다 높은 선군혁명 단결로 발전하고 있다. 선군혁명 단결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북은 위대한 철학자 김정일은 일심 단결과 정치지도력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단결이라는 보다 높은 선군혁명 단결로 발전하고 있다. 선군혁명 단결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북은 위대한 철학자 김정일은 일심 단결과 정치지도력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단결이라는 보다 높은 선군혁명 단결로 발전하고 있다. 선군혁명 단결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북은 위대한 철학자 김정일은 일심 단결과 정치지도력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단결이라는 보다 높은 선군혁명 단결로 발전하고 있다. 선군혁명 단결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북은 위대한 철학자 김정일은 일심 단결과 정치지도력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단결이라는 보다 높은 선군혁명 단결로 발전하고 있다. 선군혁명 단결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북은 위대한 철학자 김정일은 일심 단결과 정치지도력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단결이라는 보다 높은 선군혁명 단결로 발전하고 있다. 선군혁명 단결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북은 위대한 철학자 김정일은 일심 단결과 정치지도력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단결이라는 보다 높은 선군혁명 단결로 발전하고 있다. 선군혁명 단결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식 사회주의»

